

칼 빌러의 삶과 사상*

이남석(강릉대)

1. 들머리에

사람은 진정 무엇으로 사람일 수 있는가? 생물학적 종의 고유성에 관한 이 인문학적 물음에 칼 빌러(Karl Bühler 1934)는 사람에게서 가장 사람다운 특징으로 언어(Sprache)와 도구(Werkzeug)를 말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공작인(homo faber)은 물건을 고르고 다듬어 도구로 이용하고,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은 언어를 이용해 이웃과 교류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사실 인문학(studia humanitas)의 본질에 관한 탁월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찰스 벨(Charles Bell)의 신체의 구조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도구와 언어에 의지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로써 더욱 유기적 발전을 이룬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의 의도를 이룬다는 점에서 언어는 확실히 도구에 매우 가깝다. 그렇지만 사람의 몸에서 유리된 개인의 외연적 수단으로서의 물질적인 도구와는 달리, 언어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의 반응을 야기한다. 언어는 그러한 점에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빌러의 이러한 인문학적 강령은 그의 불후의 명저 『언어 이론』의 들머리를 이끄는 프로그램적 선언으로서 언어학, 심리학, 철학 및 인류학을 포함하는 통합적 학문으로서 그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사람의 논리인 일반 신호학을 겨냥한 것이다. 그의 『언어 이론 Sprachtheorie』(1934)은 기품있고 유장한 문체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리만큼 힘이 넘치는 산문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바로 그 우아한 형식이 독자로 하여금 거의 매번 그 도저한 지적 깊이를 그저 스쳐가게 할 가능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근대의 사상가 가운데 오늘날 빌러만큼 그의 사상과 저작의 폭이 그 깊이와 더불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학자도 없을 것이다. 언어학자로서의 그의 이름은 소쉬르(F. de Saussure)나 촘스키(N.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2-050-A0001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homsky)와 견주어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심리학자로서는 프로이트(S. Freud)와 아들러(Adler)의 반열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우리 학계의 정황이다. 그렇지만 언어학의 여러 문제와 소위 기호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라면 서구의 지성사를 다루는 여러 문헌의 맥락에서 그의 이름을 한 번쯤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논문은 칼 벨러의 삶의 궤적을 소묘함으로써 그의 사상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한편, 그의 언어 이론이 전제하는 사상의 근대성을 밝히는 데 가늠자를 맞출 것이다. 이를 통해 인류의 정신사에 불후의 업적을 남겼음에도 그의 학문적 완숙과 영향력의 전개를 가로막고 앓아간 당대의 가파른 정치 사회적 소용돌이의 시대 상황을 성찰하면서, 여전히 새롭고 도전적인 인문학적 영역과 주제를 우리에게 남겨 놓고 있는 그의 사상을 가늠해 볼 것이다.

2. 그의 삶

칼 벨러는 1879년 5월 27일 하이델베르크 인근의 메케스하임(Meckesheim)에서 태어났다. 유복하지 못한 부모의 슬하에서 유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중등 과정의 교육도 교구 목사의 중재로 겨우 마쳤다. 그러한 영향인지 그는 한 때 신학을 수학 파 더불어 대학의 전공으로 고려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의 전기를 기획한 에쉬바하(Eschbach 1990)¹⁾의 자료에 따르면, 프라이부르크 대학 시절 그의 전공은 의학이었다. 그의 최초의 박사 학위 논문은 크리스(Johannes von Kries)의 지도 아래 색채 인식을 주제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그의 의사로서의 이력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심리학을 생의 업으로 삼는 데는 쾰페(Külpe)와의 만남이 전기가 된다. 벨러가 어떻게 그를 만났는지, 초기에 작성한 그의 이력서의 서술을 삼인칭에서 일인칭으로 옮겨 그의 다양한 지적 편력과 함께 살펴본다.

나는 아주 짧은 동안 개업의로 활동한 후, 곧 철학 연구로 방향을 돌렸다.
1903-04년 겨울 학기와 1904년 여름 학기에 나는 배움커(Baumker)와 쾰글러

1) 이 논문의 2부는 벨러의 전기에 관한 에쉬바하(1990)의 자료 정리에 빛이 있다.

(Ziegler)의 지도 아래,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서 연구를 했다. 그리고 1904년 11월 5일, 나는 『헨리 홈에 관한 연구 Studien über Henry Home』를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여 철학부에서 이옥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나는 1904-05년 겨울 동안 그 곳 심리학 연구소에서 연구했다. 1905년 여름, 나는 본에서 에르트만(Erdmann)의 강의를 들었고, 1905년 가을에는 뷔르쯔부르크에 돌아왔다. 그곳에서 쾰페(Külpe) 교수는, 내가 오래도록 갈망하며 가슴에 품어온 계획인, 사람의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분석해보겠다는 시도를 마침내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10월 1일 나는 뒤어(E. Dürr)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심리학 연구소 조교가 되었다.

(Bühler, 1907년 3월 2일)

그는 이 연구의 결과를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 후에 정교수 자격시험 논문으로서 『총체적 심리학을 위한 문헌 Archiv für die gesamte Psychologie』이란 저널에 공개했다(Bühler 1907; 1908).²⁾ 1909년 빌러는 쾰페(Oswald Külpe)를 따라, 본(Bonn) 대학으로 갔다. 본에 머무르던 몇 년 동안 빌러는 많은 논문을 써서 출판했다. 그의 정교수 자격시험 논문 이후의 최초의 연구는 언어에 초점이 모아졌고, 그것은 곧 그의 관심의 중심이 되어버린다. 이는 그의 「규범 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언어의 인식에 관하여 Über das Sprachverständnis vom Standpunkt der Normalpsychologie aus(1909)」란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빌러의 관심은 다시 형태 이론(Gestalt theory)의 주제로 확대된다. 그 결과는 곧이어 1913년 그의 저서 『형태 인식 Die Gestaltwahrnehmungen』과 1922년의 그의 연구 「색채의 출현 방식 Die Erscheinungsweisen der Farben」으로 나타난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빌러는 서부 전선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그러다 쾰페가 겨우 53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뜨자 1915년 말에 그는 다시 뮌헨 대학의 부름을 받았다. 빌러는 교수직과 연구직을 관리하는 짐을 떠안았을 뿐 아니라 군의관으로서 군 복무도 계속해야 했다. 이 시절 그의 온 관심을 빼앗으며 애를 태우던 한 가지 사건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즉,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하던 샬로테 말라코프스키(Charlotte Malachowski)란 미모의 여

2) 그의 정교수 자격 시험을 위한 논문은 『정신 과정의 심리학에 기여할 제반 사실과 문제 Tatsachen und Probleme zu einer Psychologie der Denkvorgänge』(Bühler 1907; 1908)이다.

학생이 쾰페의 지도 학생으로 뮌헨으로 왔지만 그의 돌연한 죽음으로 인해 칼 뵐러가 이 새로운 학생의 지도 교수의 임무를 떠맡았다. 그는 곧 결혼을 제안 하여 이 아름다운 여성을 놀라게 했지만 사려깊은 샬롯테는 잠시 그 제안을 깊이 생각한 후, 마침내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은 1916년 4월 4일 베를린 샬롯테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쾰페가 죽은 후, 그의 빈 자리를 놓고 뮌헨 대학 당국이 뵐러가 아닌 에리히 베커(Erich Becher)를 그의 후임으로 임명하자, 칼 뵐러는 무척 실망했다. 그렇지만 그는 곧 드레스덴 공과 대학의 교수직에 임명됨으로써 더욱 기뻐했다. 1918년의 일이었다. 비록 심리학이 드레스덴 대학에서는 주변 학문으로 인식되었지만, 이것은 칼 뵐러가 그 자신의 힘으로 차지한 최초의 자리였다. 뵐러의 가족이 드레스덴에서 보낸 4년 동안, 샬롯테가 그의 정교수 자격시험 논문을 완성시켰으며, 계발 심리학에 관한 칼 뵐러의 주요 저작의 초판이 『어린이의 정신발전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Kindes 1918』의 이름으로 출판됐다(영어판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Child, 1930). 이 책이 나온지 1년 후 『어린이의 정신발전 개요 Abriß der geistigen Entwicklung des Kindes(Bühler 1919)』가 뒤따라 출판됐다. 뵐러가 이 즈음 학계에서 드높은 명성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칼 스템프(Carl Stumpf) 이후 자리가 빈 베를린 대학의 교수직 임명을 위한 후보의 명단에 제 2위로 올랐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그와 동시에 그라쯔(Graz) 대학도 그를 유치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1914년 비엔나 대학의 철학부는 세 명의 저명한 학자를 거의 동시에 차례로 잃게 되자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칼 뵐러도 그 자리에 응모했다. 로버트 라이닝거(R. Reininger)는 심사 위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가 현재 필요한 사람은 일반 심리학자입니다. 뵐러가 바로 그러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심리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 갔습니다. 심리학은 이제 어려운 난제들의 실험적 처리에서 그가 보인 열정과 솜씨에 의해 상당히 풍요로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를 초빙하여 우리 학교의 교수직에 임명하면, 그것은 대단한 소득으로 간주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라이닝거(Reininger), (레프젤테른(Lebzelttern 1969: 26)에서 인용)

심사위원회는 칼 빌러의 이름이 그 교수직 임명을 위한 후보자 명단에 첫 번째로 올라야 한다는 그의 견해를 받아 들었다. 그 해 9월 29일 빌러는 마침내 임명장을 받았다. 이후 그의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된 학문 활동의 비엔나 시절은 그렇게 시작했다.

비엔나 심리학은 1920 연대 들어서 세계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았다.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의 영향 탓인지 빌러의 강의는 그의 비엔나 도착 직후부터 보통 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그의 뛰어난 수사학적 재능도 한 몫 기여했을 것이다.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리만큼 힘이 넘치는 그의 산문은 그의 『언어 이론 Sprachtheorie』이 증거한다. 이 기품 있고 유장한 문체로 쓰인 불후의 명저는 그러나 바로 그 우아한 형식으로 인해 독자로 하여금 매번 그 도저한 지적 깊이를 그저 스쳐가게 만들고 있다. 오직 거듭 읽고 또 읽어야만 겨우 저 심연에 이르게 될 수 있을 뿐이다. 빌러 자신이 여러 면에 걸친 광범위한 관심의 소유자였던 만큼, 그는 아내이자 동료인 샬로테와 더불어 여러 재능있는 동료들을 복돋우고 조직하여 서로 다른 개인적 연구와 개별적 관심을 조정함으로써 알관되고 인상적인 연구집단을 만들었다. 비엔나 심리학의 이른바 전성기는 그렇게 도래한 것이다.

그의 심리학 연구소가 발전한 것은 그의 부인의 노력에 더 큰 힘을 입었다는 평가가 있다. 록펠러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1924년과 1925년을 미국에서 보낸 후, 그녀는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10년 동안 그 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비엔나 학파의 심리학의 전성기를 위한 터전을 마련했다. 왜냐하면 록펠러 재단의 재정적 후원은 인적 자원의 대단한 확대를 가능케 했으며, 그 연구소를 수많은 방문 학자들과 외국 유학생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었다. 이제 비엔나 대학은 프로이트(Freud) 학파와 아들러(Adler) 학파 이외에도, 심리학의 세 번째 기둥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비엔나 대학은 이 새로운 분과학의 메카로서 그 명성을 굳히게 되었다.

비엔나 대학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빌러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점차 아주 조용한 연구 분위기로 옮겨 작업했다. 그가 연구소의 일상적인 확장보다는 사색에 쾌적한 연구 분위기를 선호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적 참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빌러가 눈에 띄게 참여했던 조직과 단체의 단순한 목록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비엔나 교육학회, 비엔나 사회학회, 문화학 학회,

오스트리아 학술원, 그가 주관하는 비엔나 학과의 심리학 세미나 워크숍, 비엔나 대학의 의학부의 두뇌 병리학 및 정신병리학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문화 연합 및 지식인 노조의 국제 연맹 등이 그가 참여한 단체 목록이다 (참조, Eschbach and Willenberg 1988). 만일 누군가 1922년에서 1938년까지의 기간에 완성된 박사학위 논문의 목록을 점검해보면, 그는 심리학을 도이치어로 말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쉬바하는 말한다. 그의 비엔나 시절, 칼 뷔러는 마이스터(Richard Meister) 및 라이닝거와 각각 130여 편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리고 쉘릭(Morris Schlick)과는 약 40여 편을 지도했다. 칼 뷔러는 1927-28년 동안, 미국의 저명한 대학들, 이를테면 스탠포드(Stanford), 존스 홉킨즈, 하버드 및 시카고 대학에서 방문 교수 자격으로 1년을 보냈다. 나찌가 도이치란트에서 정권을 틀어잡기까지, 칼 뷔러는 도이치란트 심리학회의 회원으로 매우 활발히 참여했다. 1929년에는 비엔나에서 제 11차 연중대회를 갖기도 했다. 그는 또한 그의 동료들과 더불어, 국제심리학 대회에도 참여했다. 그의 개인적 명성과 비엔나 학파가 누렸던 높은 성가는 그가 1930년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사실에도 반영된다. 그가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은 실로 중대한 실수로 여겨질만 하다. 1940년에는 더 이상 비엔나에서 국제 심리학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그는 나찌의 테러를 피해 그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는 데 온 관심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제3제국의 오스트리아 합병과 그에 따른 일련의 긴박한 사건들을 직면하여, 칼 뷔러는 위에서 언급한 비엔나의 다양한 기구와 조직들과 관련해 그 동안 맡아 해오던 많은 역할들을 돌연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서에 근거한 일련의 급격한 사건들 가운데 맨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1938년 3월 23일 칼 뷔러의 체포이다. 그 뒤 칼 뷔러는 6주 반 동안 “보호구금”되었다. 이렇게 해서 칼 뷔러는 합병 이후 수 주 만에 체포된 비엔나 지식인의 그룹 속에 끼이게 되었다. 그는 이 대규모의 집단 체포를 히틀러의 술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충격 마비”의 기술로 이해했다. 어떤 원고에서 뷔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에 대한 무난한 표현이 바로 보호 구금이다. 어느 누군가가 보호 구금된다고 하자. 이제 누가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게 된다. 그 개인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동 사회가 그 개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의 체포와 관련된 무수한 추측들이 나돌았다. 이

를테면 사회주의자였다느니, 친 유태인 성향이라느니, 합병되기 이전에 이미 나찌 소속 대학생들을 차별대우했다느니, 그게 아니라 비밀 결사 조직의 일원이었기에 박해받았을 거라는 등의 실로 많은 추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그를 심문한 문서를 포함한 어떤 기록에 근거해서도 입증할만한 것은 없었다.

빌러가 구금되었던 6주 반 동안, 국가 사회주의 교직자 노조의 위원장이 만든 제안에 기초하여, 그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유”를 들어, 그리고 “교수 사회의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빌러의 직무 정지안을 제출했다(DÖV). 1938년 4월 22일, 교육부는 비엔나 대학의 총장에게 지시하여, 일단의 교수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지시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그들 가운데는 칼 빌러도 물론 들어 있었다.

빌러가 1938년 7월 31일 구금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이미 그의 학술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근거인, 그가 소장직을 맡고 있던 심리학 연구소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그보다 광범위한 교류의 근거를 마련해주던 인문학부의 교수 사회에도 역시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다. 1938년 5월 28일 오스트리아 교육부는 비엔나 대학 총장에게 지시를 내려, 빌러를 1938년 5월 말로 잠정적인 퇴직에 처하도록 했다(참조, DÖW 6802b).

그 이후 빌러는 비엔나 학술 환경으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되어 갔다. 당시 오스트리아를 떠나 외유 중이던 그의 부인 샬롯데에게 보낸 5월 21일자 편지에서 칼 빌러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저 아득한 적막과 침묵만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소. 그 많은 동료들과의 사교적 접촉은 이미 예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제는 그러한 흔적조차 완전히 사라졌소.

이처럼 그가 비엔나를 떠나기도 전에, 빌러는 이미 그 자신의 전공분야는 물론 인접 분과학에서 학술적 교류를 위한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태와, 합병될 때까지 비엔나에서 15년 동안의 과정에서 닦아 놓았던 모든 사회적 교류의 상실에 직면했다. 이 빼앗김에 의한 상실의 시대는 곧 이어 결행한 그의 미국으로의 망명으로도 끝나거나 별충되지 않는다. 그의 중단 없는 계속적인

학술 연구의 수행에 치명적인 두 번째의 단절은, 1938 년에 그가 그의 온전한 학술적 교류와 그의 강의 및 저술에 관련된 원고를 고스란히 버려두어야 할 뿐 아니라, 비엔나의 그의 개인 도서관도 그대로 놔두고 떠나야 했던 사실에서 비롯한다. 이렇게 빼앗긴 그의 학술적 도구는, 그가 그의 분야에서 접할 수 있는 문헌에 대한 남달리 철저하고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가치 있고 풍요한 구상과, 이전의 연구의 성과들을 종합하여 마침내 그 자신의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던 만큼, 뵐러에게는 더욱 비극적이었다. 그의 도서관을 빼앗아 간 것은 연속적인 그의 학술적 작업의 수행에 통탄할만한 장애를 야기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완성시켜 주석을 가한 출판물들을 더 이상 참고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유럽의 문헌들은 흔히 미국에서는 접해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칼 뵐러와 샬롯데 부부는 심지어 그들 자신의 출판물을 미국 친구들과, 비엔나에서 그들의 지도를 받던 제자들로부터 얻어 보아야 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훗날 유럽의 헌 책방을 뒤져 자신들의 책을 입수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비엔나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던 학문적 노력의 단계를 미국에서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광포한 시대의 간략한 스케치는 칼 뵐러가 이후 미국의 삶에서 침묵의 나라 속에 빠졌던 한 가지 근거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나찌의 오스트리아 점령이 뵐러 학파를 난폭하게 문닫아버린 것을 고려하면, 1938 년 이후의 세월이 뵐러에게는 그대로 인간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재앙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뵐러에게서 비엔나에서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학술적 작업을 그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모든 학술적 자원을 빼앗긴 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칼 뵐러와 샬롯데 부부의 입장에서 뉴욕의 포드햄(Fordham) 대학의 제안은 일종의 구원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안은 그들이 미국 땅을 밟자마자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 제안된 직책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부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살아남기 위해, 뵐러 가족은 미국 중 서부의 여러 대학들에서 제안하는 각기 다른 직책을 받아들였다.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비엔나 대학에서 그들이 누리던 자리에 걸맞는 학문적 지위를 미국에서 찾을 수 없었다. 뵐러 가족이 미국에 이민했던 시기는 이미 많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반듯하고 별이 좋은 직책들을 다 차지한 뒤였다. 뵐러가 미국에 도착할 즈음 그는 벌써 60

세였다. 그리고 그의 전형적인 유럽식 교수 스타일은 어쩌면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낯설었을 것이다. 그의 빈곤한 영어 구사력도 그러한 낯설음에 한 몫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지 않다는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당시 친 유대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되도록 많은 시간 강사직을 확보하고 더 많은 초빙 강의를 맡기 위해 애를 썼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모두 그의 아내를 지원하고, 그의 아들의 대학 교육비와, 미국으로 건너 올 그의 딸의 배상으로 나갔다.

칼 빌러는 그의 말년에 깊은 병에 시달리면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미국에서 1963년 10월 24일 84세의 나이로 한 살이를 마감했다. 샬롯에 빌러는 그 후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 그의 큰 아들 곁에서 살던 중 1974년 2월 3일 칼 빌러의 곁으로 떠났다(참조, Eschbach 1990).³⁾

3. 그의 사상

직관(Anschauung)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Begriff)이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이러한 칸트(I. Kant)의 명제는 세계에 관한 사람의 인식에 있어 개념과 직관의 상보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 언어의 본질에 관한 빌러의 성찰과 다르지 않다. 빌러는 사람의 언어를 구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영역(Feld)이라고 했다. 즉, 다양한 방식에 의한 감각적인 가리킴(Deixis)과 보여주기(demonstratio)는 세계의 개념적 파악과 추상성 못지 않게 자연 언어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두 가지 언어의 현상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동등하게 언어의 본질에 닿아 있는 것이다(참조, Bühler 1934). 이 자연 언어의

3) 에쉬바하(Eschbach)는 빌러 부부의 전집을 출판하기 위해 그들 자녀의 전권을 위임받아 그들의 문헌적 유산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그의 망명 이후 전 세계로 흩어진 그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된 빌러 전집 간행(Bühler-editions-Project)은 네델란드의 니메겐(Nijmegen)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심리 언어학과 및 에센(Essen) 대학 커뮤니케이션 세미나에서 그의 주도 아래 총 10권으로 담아낼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도 그의 탄생 125주년을 계기로 제2차 국제 빌러 학술대회(Internationale Bühler-Symposium)의 개최를 2004년 5월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두 가지 본질은 지시의 영역(Zeigfeld)과 상징의 영역(Symbolfeld)으로 나뉘고 일컬어진다. 빌러가 감각적 가리키기(perceptual pointing)라고 한 것은 지시의 속성(Indexicality)이 지각의 영역에 기반 한 인식의 중요한 한 가지 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상징을 그 속성으로 하는 표현은 말하기의 상황으로부터 독립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Begriff)이 그 특징이다. 자연의 언어에는 본질적으로 이 두 개의 영역이 닦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새롭고 참된 것이다. 이는 오늘의 언어학의 주류와 비교할 경우 잘 나타날 것이다.

촘스키에 있어 언어학의 철학적 명제는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이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보편적인 언어의 능력(language faculty)을 갖고 태어난다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다. 분석의 주제로서 언어에 관한 그의 연구 목표는 보통의 말하는 사람의 능력에 수반하기 마련인 생성 규칙의 완전 명료한 체계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보통의 말하는 이가 자신의 언어에 관한 문법의 속성과 표현의 관계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무한한 수의 문장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것은 촘스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이 능력에 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의 언어에 관한 생성 문법을 이미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문법의 생성 규칙과 정의에 관한 명료한 체계가 우리의 정신이나 두뇌의 어느 곳에 입력되어 있을 것이란 가설에서 촘스키의 보편 문법론은 출발한다(참조, Stich 1996: 1043). 그러니까 이러한 가설의 함의는 말하는 이에게는 이미 문법이 심리학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이다. 만일 말하는 사람이 그의 심리의 기저에 내재하여 재현된 문법을 실제로 갖고 있다면 촘스키와 그의 학도들의 목표는 필연적으로 그 '심리의 기저에 실재하는' 문법을 찾아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의 보편적 말하기의 능력의 메카니즘으로서의 심리학적 실재는 그 기저의 언어적 성분(lexicon)에서 매번 집합(enumeration)에 의해 연산 처리(computation)되어 개별 언어의 표층 구조에서 실현된다(참조, Vivian Cook and Mark Newson 1996: 313f).

촘스키의 이 주제는 서구 정신사에서 타고난 관념(innate idea)이란 주제의 역사적 변주에 다름 아니다. 플라톤의 대화의 「메논 Menon」에서 소크라테스는 문답에 의해 기하학에 무지한 노예에게 기하를 깨우치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적 성공에 힘입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무지에는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

는 주제에 관한 올바른 관념이 들어있다는 확신에 도달한다. 여기서 논의의 중심에 놓인 “앎”의 문제는 생물학적 범주로 재구하면 유전적으로 타고난 결과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참조, Grewendorf 1995: 114). 즉 사람의 어떤 지식은 습득 이전의 문제로서, 이 경우 회상(anamnesis)이 주제이다. 촘스키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의 보편 문법론, 즉 사람은 언어의 구조를 지배하는 보편 원리에 관한 지식을 본유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는 그의 가설을 플라톤의 추론에 기대어 근거하고 싶었을 것이다. 촘스키는 플라톤의 추론을 유전적 전달 및 환경에 의해 촉발된 성장과 성숙의 유기적 과정으로 전생과 상기라는 플라톤의 가설을 대체하고 있다. 이를 라이온스는 유전적 상기(genetic anamnesis)라고 부른다(서창렬 1999: 208).

한편 데카르트 또한 앎의 주제를 선험적 본유 관념의 문제로 이해한다. 앎에 관한 그의 목표는 수학의 논증 과정처럼 다른 가능성이 없는 명료하고 분명한 앎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물상의 본질에 관한 우리의 인식의 확실성은 감각의 기관에서 나올 수는 없다. 실재하는 물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그에 대한 감각의 속성을 제거한 상태의 명료하고 분명한 사유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의 심신 이원론이 분명해진다. 만일 우리가 감각의 자극으로부터 참된 지식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참된 지식이 어떤 기초 개념과 원리로부터 추론한 결과라면, 이 개념과 원리는 우리의 정신에 선험적으로 내재하는 타고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여기에 데카르트의 근본 이념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즉 이성은 자신의 자연적 규범을 갖고 있는 것이다(참조, 김기찬 1999: 387쪽 이하).

데카르트의 이러한 천부 인성론은 이성의 과도한 믿음에 근거한다. 즉 데카르트는 사람의 이성이 그의 영혼이나 사유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했다. 이에 대하여 로크(J. Locke)는 사람의 이성이 영혼 또는 정신 그 자체를 알 수는 없다고 반론하면서 이성의 한계를 인정했다(참조, Locke 1959: 37-118; 이남석 1998). 칼 벨러 역시 데카르트의 그러한 태도를, 그가 식물이나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도 기계로 인식했다고 비판했다. 즉 데카르트는 사유의 실체(res cogitans)가 사람의 몸의 어느 특정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Bühler 1936). 데카르트의 이러한 기계론적이고 유물론적 사유는 케플러와 갈릴레오 이래 서구 지성사의 한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

이다. 데카르트의 그러한 과도한 이성애의 믿음은 심리 물리학(Psychophysics)에서 거세계 비판받는다. 즉 데카르트의 명제 cogito ergo sum에서 그의 믿음인 사유 그 자체가 의심의 여지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인식의 공유를 허락하지 않는 개인적 영역(subjectivity)일 뿐이다(참조, 김재권 1997; 1999).

심신을 엄밀히 분리한 데카르트나 촘스키의 이성주의는 모두 그의 왕국에서 시인을 몰아낸 플라톤의 후예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자연 언어에서 시인의 마땅한 거처이자 그 정신의 토양인 감각의 영역을 제거하고 나면 풀기 없고 메마른 이성의 영역만이 불완전한 채로 남을 것이다. 칼 빌러는 그러한 견해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로크(J. Locke), 칸트(I. Kant) 및 후설(E. Husserl)의 계열에서 출발하여 사람의 마음을 탐구한다. 그리하여 그의 당대의 심리학의 주류이던 행동주의(Behaviourism)를 거세계 비판하며 새로운 심리학의 정초를 위한 야심찬 기획을 세우고 나아갔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당시 칸트 학회지에 발표됐던 『심리학의 위기 Krise der Psychologie』(1927)에 명시적으로 드러났고 다시 그 후 『언어 이론 Sprachtheorie』에서 원리학(Axiomatik)의 프로그램에 의해 보다 구체화됐다. 즉 그의 새로운 심리학은 낱날만으로 가능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하나의 통합적 분과학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자극의 시원, 유기체의 의미있는 행위 및 그들의 서로 관련된 객관적 마음의 구조에서 출발한다. 빌러는 그의 이러한 철학적 심리학적 문제를 언어의 현상에서 명쾌하게 논의한다. 그의 이러한 사유 방식과 논의가 얼마나 근대적이고 새로운 것인가를 다음의 언어학의 구조식(formula)에 의해 좀 더 가까이 접근해보기로 한다.

3.1 지시와 상정의 형식

촘스키의 선형적인 보편 언어 능력은 현실에서는 유한한 언어 성분과 언어 규칙에 의해 문장 성분의 관계 구조의 분석으로 나타난다. 그의 수형도 모델은 형식 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연 언어의 명제적 성분의 분석에 유용한 틀이다. 문장 성분 사이의 관계와 생성 규칙에 관한 그의 구조식은 아무리 확대되거나 최소화되어도 궁극적으로는 명제에 국한된 것이다. 이것은 자연 언어에

관한 한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따라서 그의 문장 구조식은 $S = P$ 또는 $S \rightarrow P$ 로 고쳐 표현될 수 있다.

(1) $S = P$

(1)식에서 P는 명제(Proposition)의 상징이다. 이 명제는 다시 명사구와 동사구의 결합인 $Np + Vp$ 의 관계 및 그 분석의 내용이다. 촘스키가 이끄는 통사론은 소위 표준 이론(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1965) 이래 최근의 최소주의(Minimalism)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문법의 범주 인칭(Person), 시제(Tense) 및 서법(Mood) 등의 지시 범주(deictic Category)를 조동사(AUX) 또는 형태 변화의 범주(INFL)에 묶어 정리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그들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여 의미론 및 통사론의 전개에 기여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로써 그들은 사람의 사유의 동력인 감각적 세계, 벨리의 표현을 빌리면 자극의 시원을 분석해낼 수 없는 한계를 또한 명시한 것이다.

촘스키의 언어 모델이 $S \rightarrow P$ 로 이해될 경우, 이는 인공 언어의 형식 논리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자연 언어의 분석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그의 일부 현상에만 유효하다. 이는 그의 생성 문법 이론이 언젠가는 자연 언어의 기술에 부적절하다는 언어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퇴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숨기지 않는 라이온스의 견해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뒷받침될 것이다(서창렬 1999: 193).

이러한 한계는 테니에르(Tesnière, L)의 통사론을 잇는 발렌쯔(Valenz) 문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발렌쯔의 문장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 $S = M + P$

이 식이 갖는 함의는 M(=Modality)가 수의적이란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의적 성분 M이 없어도 $S = P$ 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학이나 형식 논리(formal logic)와 같은 인공 언어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사람이 일상으로 부리는 자연 언어의 본질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특히 순수 논리학

이 만들어내는 문장들의 극단적인 경우와, 직관(Anschauung)에 의한 모든 감각적 내용을 인위적으로 '정화시킨' 인공 언어의 경우를 제외한, 자연스러운 언어 일반의 쓰임새에 단순히 통사적 형식 논리와 사실 관계의 명제적 진실만이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세계에 관한 인식에는 이 두 가지 대립적 요소의 통합적 이해가 본질이다. 빌러의 모델에는 그러한 지평이 열려 있다. 즉 사람의 인식이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신뢰할만한 가설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자연 언어에서 심리 영역의 표현은 불가피한 필수적 성분이다. 모든 자연 언어에 나타나는 이 보편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식의 재현을 통해 접근한다(Wolfgang P. Schmid 1972; 1985; Rauh 1983; Lee 1996).

(3) S = Modalität × Proposition

이 구조식은 칸트의 명제인 개념(Begriff)과 직관(Anschauung), 자연 언어의 본질에 관한 빌러의 성찰과 그의 언어 이론은 물론, 두다이(Yadin Dudai 2001)의 「두뇌 연구의 최근 전개」에서 밝혀진 사람의 인지 기능을 정확히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조식에서 Modalität는 자극의 시원으로서 말하기 상황에 관련된 말하는 이의 심리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말하기 상황의 지시적 정보(deictic Information)의 본질을 내용으로 하며, Proposition은 통사적 형식 관계 및 세계의 물상과 사실 관계를 재현하는 명제이다. 이 M과 P는 서로 적집합(Cartesian Product)의 관계로서 어느 한 요소도 0이 될 수 없다. 즉 두 범주 가운데 어느 하나가 0이면 이 구조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식 S = M x P 에서 M은 P를 신호 생성자(encoder)로서의 말하는 이와 신호시(coding time) 및 서법(mood) 등, 말하기의 상황에 관련짓는 모든 성분들을 포함한다.

이 구조식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즉 사람이 표현하는 모든 말하기의 기본 단위를 문장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이는 세계와 관련된 명제(Proposition)를 표현할 때 반드시 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사람이 세계의 물상과 사태에 관한 언어적 재현을 시도할 때는 그의 심리

적 정서가 반드시 수반된다. 이 심리적 정서는 문법 범주로서 소위 인칭(Person), 시제(Tense) 및 서법(Mood)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인 정서의 영역은 형식의 논리를 추구하는 자연 과학의 기술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사람이 일상으로 부리는 자연 언어와 예술 일반의 양식에서 보다 명시적이고 극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감각의 자극에 의해 발원한 심리적 정서의 영역이 언어의 연구에서 차지하는 인문학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기술원의 두다이(Yadin Dudai)의 「두뇌 연구의 최신 전개와 그것이 미칠 사회적 충격」에 따르면 사람의 지식 체계는 두뇌의 다양한 회로를 거쳐 작동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상황적(declarative) 지식으로서, 사실(Fact)에 관련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 중립적인(non-declarative) 지식으로서, 두뇌 속에 축적된 정보이다. 이 두 종류의 지식 체계는 사람이 세계를 마주하여 인식할 때, 동시에 동원된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두뇌 속에는 세계의 사실적 정황에 직접 관계하는 온 라인(On-line)의 지각적인 정보와 그와는 독립적인 오프 라인(Off-line)의 정보 체계가 존재하는데, 사람의 세계에 관한 인식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지식 체계가 동원되어 활성화된다(Dudai, 2001).

따라서 사람의 세계의 이해는 지금 그의 환경뿐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사람의 인식에는 완전히 객관적인 것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외부의 사실적 상황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내재적인 정보로서의 기억은 사람이 일정한 세계의 자극에 의해 일정한 의미로 이해하여 개별적 인식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계는 우리가 이미 습득한 기존의 정보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련된 직접적인 지각에 의한 정보의 결합을 통해 해석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이남석 2002).

3.2. 신호학 서설

칼 벨리는 자신의 분과학에서 이른바 기호학의 주류를 이끄는 몇몇 학자들의 패권을 용납하지 않는다. 즉 기호학이 아직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같은 소수의 비전있는 학자들의 저술 속에 밀교처럼 은밀히 저장되어 있고,

미국의 피스(Charles S. Peirce) 및 모리스(Charles W. Morris)와 같은 학자의 선구적 저작들이 여전히 출간되지 않았거나 아직 쓰여지지 않았던 시기에, 그는 이미 신호학(벨러는 Semiotics보다는 Sematology란 술어를 더 선호했다)에 기본적인 학문의 지위를 부여했다. 지난 2천여 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 묻혔던 신호에 관한 이론이 이제 일상적으로 논의가 전개됨으로써 벨러의 신호학적 접근의 근대성과 유익함이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 오랜 역사에 비추어볼 때 지난 25년 동안 압축적 진보를 이루고 마침내는 대학의 제도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학은 여전히 언어학, 철학 및 심리학 쪽에 방대한 분량의 과제를 비축해놓고 있다. 이 세 분과학들은, 벨러의 생각으로는 신호학이 마땅히 누려야할 이론적 지위를 허용하는 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한다. 이러한 유보는 부분적으로는 전통적인 학문들이 유연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소위 많은 기호학적 모델들의 보잘 것 없는 이론적 틀에서 야기된 것이다(Eschbach 1990).

우리는 들머리에서 언어가 사람에게서 가장 사람다운 본질로서, 인문학의 본질적 주제임을 논의하면서 그 매개적 성격을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이러한 언어의 매개적 성질에 주목할 때, 우리는 또한 언어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은 언어의 신호를 생성하는 사람이 발신자로서 그 신호의 매체에 어떤 메시지를 실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두 명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행위에 참여한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메시지를 신호로 엮고(encoding), 다른 사람은 그 신호화된 메시지를 해석(decoding)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 신호를 생성하는 사람과 그를 해석하는 수신자의 역할이나 작업은 동일하지 않다. 이야기의 주도권은 신호 생성자(encoder)가 거머쥐고 이끈다. 그 결과 그의 메시지는 통사적 형식(syntactic form)과 의미론적 내용(semantic content) 및 상황 정보(pragmatic component)를 담는다. 이때 통사적 형식과 의미론적 내용은 비교적 신호 생성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적이지만, 상황정보는 그에 의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호 생성자의 상황이 그의 메시지를 위한 정향 중심을 형성하고 재현한다. 이로 인해 그의 시각(visual angle), 그의 관점(point of view) 또는 간단하게 그의 퍼스펙티브(perspective)가 언어적으로 그의 메시지에 담긴다. 신호 생성자의 주도적이고 생산적인 역할과는 달리, 신호를 해석하는 사람(decoder)이 수

행하는 것은 그에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이다. 그의 과제는 그 메시지의 통사적 형식과 의미론적 내용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호 생성자의 퍼스펙티브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있다. 만일 신호 생성자의 퍼스펙티브의 구축에 있어 그의 “상황”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또한 그 퍼스펙티브의 재생 또는 재구축에도 반드시 중요하다. 신호 생성자의 퍼스펙티브의 구성과 재구성은 다른 아닌 지시 표현(*deictic expressions*)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참조, Rauh 1983).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언어의 신호의 원리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의 문장 구조식 $S = M \times P$ 에 관한 부가적 해석에 다름 아니다. 벨러가 의도한 신호학(*Sematology*)은 사람이 마주한 세계를 하나의 극으로 묶어 놓고, 모든 것을 기호나 술어들의 체계로 환원시킨 채, 내재적인 구조의 분석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가 생각한 사람의 심리적 기체에 관한 원리는 사람과 세계, 그리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언어와 도구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서 우리는 그리스 어원의 *Deixis*($\Delta\epsilon\iota\kappa\eta\ \Upsilon\mu\iota$, $\Delta\epsilon\iota\kappa$)와, 이의 라틴어 번역인 *demonstratio*에 관한 적합한 성찰과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지금 사실적인 삶과 유리된 채 무미건조하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술어 목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것이다.

신호의 매개적 기능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으로 다른 어떤 것을 대신 하는 것(*aliquid stat pro aliquo*)”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열개에서 쓰이는 수단을 그렇지만 우리의 학계에서는 보통 기호란 술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호란 술어는 그렇다면 본래 어떤 맥락에서 쓰였던 것일까? 인도 게르만어족에서, 이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어, 라틴어 및 도이치어에서 $\sigma\mu\alpha$ (*sign*), $\delta\epsilon\iota\chi\iota\sigma$, *Zeichen*, *signum*, *seign* 등의 낱말들은 본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러한 술어들이 원래 *Deixis*($\Delta\epsilon\iota\kappa\eta\ \Upsilon\mu\iota$, $\Delta\epsilon\iota\kappa$)에서 비롯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에 가까운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의 등가로서 기호란 번역 술어는 적절한 원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에 상응하는 말이 우리의 삶의 근저에 여전히 활발히 살아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신호란 표현이다. 이 신호란 낱말이 학문의 술어로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학문의 술어 목록에서 소외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신호'란 술어에는 기호와는 달리 '믿음'과 '약속'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구조를 규명하는 열쇠의 낱말로서 모자람이 없는 술어이다. 즉 이 술어가 사람의 지각에 호소하는 성질을 드러내는 데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이 소요된 「언어 이론」에서 그는 표현(Ausdruck), 재현(Darstellung) 및 호소(Appell)라는 세 가지 언어의 신호 기능을 논의했다. 이는 다시 그의 유명한 오르가논 모델을 통해 설명된다. 즉 하나의 신호 매체에는 그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 기능함으로써, 다시 우리의 문장 구조식의 원리가 그대로 여기서도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벨러의 신호 이론은 낱개의 신호 매체에서 세계에 관한 객관적 진실이나 단자론적 함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 및 세계와의 삼원적 관계에 대한 체계적 기술에서 출발한다.

그는 여기서 성취한 통찰을 더욱 전개하여 그 상위 단계에서 심리학의 원리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1938년 일반 신호학(General Sematology)을 기획했다. 이는 그가 언어 이론의 논리적 고향이라고 일컫는 것으로서(TS 90), 신호의 일반 원리이다.

그의 망명과 더불어 멈춘 이 사람의 본질에 관한 원리(Logic of Humanities)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벨러의 문헌적 유산의 정리와 발견을 통해 복원하는 길과, 그의 맥락에 선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의 체계와 비전을 새롭게 재구하는 일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것은 모두 오늘과 내일의 과제이다.

4. 정리

벨러는 언어의 재현 기능에서 사람의 본질을 찾는다. 그렇지만 이는 타고난 언어 능력으로서의 심리학적 실재와는 다르다. 즉 유전적으로 예정된 언어 능력은 말하는 주체가 마주한 세계의 감각적 지각으로부터 중립적인 생물학적 프로그램으로서 그의 정신 영역의 어딘가에 선택적으로 입력된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입증될 수도 없지만, 이를 위한 시도에서도 명제에 관한 설명만이 있었

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는 사람의 인식 능력과 이의 중요한 한 가지 재현 수단으로서의 자연 언어에 관한 온전한 진실이 될 수 없다. 자연 언어는 형식 언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빌리는 그와는 달리 세계에 관한 인식과 언어 능력의 주체로서 사람을 심리-물리 체계(Psychophysisches System)로 이해하고, 이는 다시 자극의 시원으로서 세계에 관한 지각의 영역(M)과 그와는 독립적인 상징의 영역(P)에 의해 온전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사람의 세계에 관한 인식에는 이 두 가지 대립적 요소의 통합적 이해가 본질이다. 이는 그 어느 일방의 배타적 관계나 은폐가 아닌 사람의 마음과 몸의 유기적 관계에 의한 세계관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을 함의한다. 우리는 이를 자연 언어에서 적집합의 문장 형식에 의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낱말의 신호 매체에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서창렬 역. 1999. 『츨스키』. 시공사.
- 이남석 역. 1998. 『로크』. 한길사.
- 이남석. 2002. 「명사의 타입과 토큰」 -개념에서 물상의 세계로-. 『독일언어학회』 17.
- 김기찬 역 1999. 『서양 철학사 A History of Philosophie』. 현대 지성사.
- Bühler, Karl. 1904. Studien über Henry Home. Dissertation Strasbourg.
- Bühler, Karl. 1907. Tatsachen und Probleme zu einer Psychologie der Denkvorgänge: I. Über Gedanken. In Archiv für die gesamte Psychologie 9: 4, 297-365.
- Bühler, Karl. 1908. Tatsachen und Probleme zu einer Psychologie der Denkvorgänge: II. Über Gedankenzusammenhänge. III. Über Gedankenerinnerungen. Nachtrag: Antwort auf die von W. Wundt erhobenen Einwände gegen die Methode der Selbstbeobachtung an experimentell erzeugten Erlebnissen. In Archiv für die gesamte Psychologie 12: 1-23; 24-92; 93-123.
- Bühler, Karl. 1927(1965). Die Krise der Psychologie. Jena: Gustav Fischer; Stuttgart.

- Bühler, Karl. 1934 (1982). Sprachtheorie. Stuttgart.
- Bühler, Karl. 1936. Die Zukunft der Psychologie und die Schule. Vienna and Leipzig: Deutscher Verlag für Jugend und Volk.
- Dudai, Yadin. 2001. New Developments in Brain Research and Impacts on Society, EBS 일요초청 특별강연 논문.
- Cook, V. and Newson, M. 1996, Chomsky's Universal Grammar. Blackwell.
- Eschbach, Achim and Willenberg, Gabi. 1988. Karl Bühler. In: Satdler, Friedrich(ed.): Vertriebene Vernunft II. Vienna and Munich: Jugend und Volk.
- Eschbach, Achim. 1990. Karl Bühler: Sematologist. In: Karl Bühler's Theory of Language. John Bebjamins Ansterdam/Philadelphia.
- Grewendorf, G. 1995. Sprache als Organ Sprache als Lebensform. Suhrkamp.
- Lebzelttern, Gustav. 1969. Karl Bühler -Leben und Werk. In Bühler, Karl: Die Uhren der Lebewesen und Fragemente aus dem Nachlaß. ed. by Gustav Lebzelttern. Vienna: Böhlau, 9-70.
- Locke, John. 1959.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Dover publications, New York.
- Nam-Seok Lee. 1996. Deixis und Honorifica. Gunter Narr Tübingen. (Beitrag zur Linguistik 421)
- Rauh, Gisa. 1983. Aspects of Deixis. In: Essays on Deixis. Gunter Narr Tübingen.
- Schmid, Wolfgang P. 1972. Die pragmatische Komponente in der Grammatik, In: Essays on Deixis. 1983. pp. 61-77.
- Schmid, Wolfgang P. 1985. Zur Klassifikation pragmatischer Elemente in der grammatischen Beschreibung, Sprachwissenschaft, Bd. 10.
- Stich, Stephen P. 1996. The dispute over innate ideas. In Sprachphilosophie, edited by Marcelo Dascal, dietfried Gerhardus, Kuno Lorenz, Georg Meggle. Berlin/New York 1996.
- Archive Materials:
DÖW, Act 6802b (April 1938) = letter of the acting dean of the Philosophical Faculty, Vienna, to the Austrian Ministry of Education.
Typescript in Bühler's Literary Estate: Bühler, Karl: TS 90: Das synsemantische Umfeld.

Zusammenfassung

Leben und Idee Karl Buhlers

Lee, Nam-Seok(Kangnung Univ.)

Karl Buhlers Sprachtheorie orientiert sich an der Psychologie. Das zeigt sich im zweiten Teil dieser Arbeit. Außerdem haben wir da gesehen, wie plötzlich er im deutschen Gebiet seine Wissenschaft abbrechen und so eilig nach Amerika auswandern musste. Damit konnte er sein wissenschaftliches Ziel, also allgemeine Sematologie im Sinne der Logik der Humanität, nicht erreichen. Aber trotzdem läßt sich erwarten, dass wir mit seinem unvergänglichen Buch und anderen Daten wieder starten können.

Er nennt das Sprechereignis, das unsere Sinne rührt, den ersten Gegenstand der Sprachwissenschaft. Das ist etwas Einmaliges, ein Geschehen hier und jetzt im bestimmten Zeitraum. Das anschauliche Zeigen gehört so zum Wesen der natürlichen Sprache wie die Abstraktion und das begriffliche Erfassen der Welt. Karl Bühler spricht von dem anschaulichen Zeigen, weil er betonen wollte, dass Deixis an die Weltanschauung gebunden ist; symbolische Ausdrücke sind begrifflich andererseits, weil sie von der Sprechsituation unabhängig sind.

Die zwei Elemente, die zum vollendeten Erkenntnis gehören, sind unelinierbar in jedem Sprachphänomen enthalten. Wir mobilisieren die zwei auf jeden fall zu unserem vollendeten Erkenntnis der Welt. Ich habe die These mit der Formel $S = M \times P$ beschrieben, die als Cartesisches Produkt von pragmatischen Komponent und Proposition interpretiert werden soll. Diese Erklärung kann auch adäquat auf Zeichensinterpretation angewandt werden.

[검색어] 지시, 명제, 신호
Deixis, Proposition, Zeichen

이남석
210-702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번지
강릉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 연구소
namslee@kornet.net